

# 가장 비싸고 더없이 추악한 유언싸움

「부당한 영향력 - 존슨 앤 존슨의 재산을 둘러싼 세기적 싸움」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한 쪽은 굳센 의지의 소유자로서 이름은 바바라 피아세카 존슨. 빈농의 딸로 폴란드 출신. 1967년 단돈 200달러만 가지고 혈혈단신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 현재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과부 가운데 하나이다. 요즘도 복권을 사고 있으며 경호원을 던킨 도너츠 사러 보낼 때면 매양 할인 쿠폰을 들려 보내는 알뜰함이 몸에 익은 여성.

또 한쪽은 죽은 남편의 장성한 전처 자식들. 그 가운데 대표(?)는 일회용 반창고와 유아용 크림으로 유명한 「존슨 앤 존슨」의 큰 아들 시워드 존슨 2세. 가정 불화와는 관계없이 시워드는 1983년 그의 아버지가 큰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거금 4억여달러를 출연하여 ‘홀스타인 賞’을 제정했던 통 큰 인물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실 터. 문제는 고인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이들은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였고, 유언에 따라 가장 큰 재산을 물려받은 새어머니이자 미망인인 바바라 존슨과 환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바바라 존슨은 “10원짜리 동전 한년도 더 줄 수 없다”고 기염을 토하였고.

신간 「부당한 영향력 : 존슨 앤 존슨의 재산을 둘러싼 세기적 싸움」(“UNDUE INFLUENCE, The Epic Battle for the Johnson & Johnson Fortune.” 642 pp. New York : William Morrow & Company.) 속에서 저자 데이비드 마골리크(David Margolick)가 지적하듯 이 대결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짓거리이다. 저자는 이 유언장 싸움을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추악하며, 가장 불만하며 가장 이채로운 대결”이라고 부른다.

3년간의 싸움 가운데 뉴욕 지방 써로게이트 법정에서 벌어진 17주 동안의 불꽃튀는 접전이 피크를 이루거니와 여기서 바바라 존슨을 대표한 셸리반 앤 크롬웰 법률사무소는 750만 달러라는 큰 액수를 받고 나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엄마와 니나 자가트(고인의 마지막 유언장을 받아 적고 신탁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받은 변호사)를 고소한 시워드 존슨 2세 쪽에서는 그들의 고소의 핵심은 돈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세뇌시켰다는 사실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음에도 자녀들은 시신의 재가 식기도 전에, 큰아들의 말을 빌면 “공공의 선”을 위해 유언장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물론 결국 바바라가 평평 울고 나서 다음과 같은 유산의 배분에 동의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불평이 없었다. 즉 자식들은 각기 500만 달러를 받으며 장남은 이와함께 700만달러를 더 받는다. 여기다 자식들을 대표한 밀뱅크, 트워드, 하드리 앤 맥콜리 법률사무소에 10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뉴욕 타임즈 법률담당 기자인 저자 마골리크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지켜 보면서 사소한 실마리조차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통찰력 있고 자신만만한 기자로서 마골리크는 이 사건을 편파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바바라 존슨의 행동에 따라 그녀를 비난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한다. 개성미가 뚜렷한 바바라가 난봉꾼인 존슨 1세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둘째 아내가 가정부로 고용하면서였다. 그녀 나이 31세 때인 1971년 둘은 결혼했고 그녀는 73세의 늙은 남편을 회춘시킬 만큼 열정적인 여성이라고 주위에서 수근거

리곤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자는 바바라를 동정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자는 바바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냉정한 필치를 서슴치 않고 있다. 예컨대 결혼이후의 그녀는 익명을 요구하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귀새끼같이 조그만 하녀가 어느덧 음험한 마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만큼 끝없는 욕망의 출세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 (존슨 1세의 간호원이었던 한 여성은 그녀를 평하기를 “존슨 부인은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을 그런 사람이예요.”) 그녀는 5년간에 걸쳐 직접 진두지휘하여 시가 2500만 달러의 저택을 지었으며 그 속에는 도난방지용 카메라와 순금 수건걸이가 붙어있을 만큼 호사를 극한 것이라고 한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고향인 폴란드를 방문하여 그다니스크시 레닌조전소(솔리다리티 투쟁의 현장)에 1억 달러를 헌납하여 전 폴란드의 영웅대접을 받았고 바웬사의 분에 넘친 대접도 받았다. 이처럼 ‘제법 돈을 줄 안다’ 싶더니 그런 칭찬과 대접이 더이상 흥미를 끌지 못했던지 그후에는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꾼으로 나서 비엔나며 로마 그리고 모나코의 부동산을 이리저리 사모았다.

그녀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성격이라면 존슨 1세의 자녀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사랑에 굶주리고 스캔달이나 뿌리고 다니면서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재벌 2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큰 딸 매리 리는 마약에 중독되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환상에 시달려 정신 질환 치료를 받는 등 불행한 생활을 겪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 가톨릭교회는 동유럽 경제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가

11년 전 미카엘 노바크(Michael Novak)는 저서 「민주적 자본주의의 정신」 속에서 “올바로 이해된” 자본주의는 로마 가톨릭의 사회정책과 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점은 현대 교황청이 근 100여년

동안 자본주의를 개신교(프로테스탄트)적 산물이라고 斜視하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고 할 만하다. 한때 노바크는 미국의 가톨릭 지식인들을 “사회적 민주주의자”로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의 가톨릭계 대학이 가톨릭을 믿는 제3세계 이민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기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1980년대를 통해 볼 때 대기업체 사장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들의 수가 개신교 사장들과 유사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가톨릭은 민주당 지지가 전통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주장은 눈여겨 볼만 한 것이었다.

노바크의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적 기업가 정신에 신학적인 정당성을 덧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의 비평가적 안목에 시비를 걸자면 그의 자료들이 대부분 경제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미국 기업 연구소’(AEI)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바크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민주적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보다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경제, 민주정치, 그리고 다원적 문화 이 세가지가 갖추어진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는 삶의 질을 높여나갈 뿐 아니라 동유럽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정책보다 기독교적 가치에 더욱 친화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마치 막스 베버를 염두에 둔 듯한 섹, 「가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CATHOLIC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334 pp. New York : The Free Press.)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노바크는 그간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윤리적 합리성을 개신교적 정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속에 개진된 막스 베버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쨌거나 오늘날 자본주의적 재해생산의 ‘마술’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였던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가 자본주의적 토대를 닦고, 나아가 자본주의적 체제

운용에 몸을 익히기 위해서는 가톨릭 정신이 기필코 요구된다고 한다.

저자가 보기에 가톨릭 윤리는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다.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의 사회적 전망”이며 또 하나는 그가 “자본주의 정신”의 총아라고 부르는 인간의 창발성과 자발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첫째와 관련하여 그는 기업과 기타 자발적 결사체(회사)가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잉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든다. 노바크는 이러한 결사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란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띠는 점에 있다고 한다. 다시말해 자본주의 제도의 발전과 개인적 덕성-예컨대 근면과 정직성 그리고 실무적 지식 등의 함양은 곧 자발적 결사체를 복돋우는 것이므로 자본주의는 그 자체 사회적이고 도덕적 특성을 기본 소자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와 관련하여 그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문학, 과학 그리고 예술에 비견되는 인간의 창조적 행위라고 본다. ‘상상력’은 그간 노바크가 신학, 철학, 교육문제, 문학 그리고 스포츠에 관한 글쓰기에 있어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오늘날 요한 교황이 천명하였던 바 모든 노동자는 神과 합작하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합동 창조자”(co-creator)로 인식되고 있는데 노바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자본주의의 참된 도덕적 힘은 인간의 창조성을 촉진하는 데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여태 인류에 의해 발전된 복음의 사회적 형태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신학적 추김은 아부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사실 노바크는 그가 추켜올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에서 활동해 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의 책은 야심찬 기업가들에 의해 눈감 박할 새 쓰러지는 개개인의 가정이 라든지 기업합병으로 인해 파멸되는 동업자의 비극, 값싼 노동력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미국 노동자의 처지, 일확천금의 윤리(?)가 횡

행하는 월 스트리트의 정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보다 높은 정신적인 윤리의식(종교적 형태)에 의해 채근되어야 한다는 노바크의 주장은 사실에 가깝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는 유일한 세계의 경제구조가 되어 있으며 이것이 그의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인 것 같다. 확실히 성당이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개인 기업에 영감을 불어 넣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귀 기울일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주장하듯 자본주의는 그 자체 자기 생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서적 표현으로 하자면 자본주의의 정신은 그 뜻한대로 이룰 것이다. 실로 과거에 있어 가톨릭은 자본주의의 현저한 장점에 대해 눈을 감았었던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내 가톨릭은 자본주의가 제 발을 제가 밟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오기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TV 프로그램에 「그것을 알려주마」라는 코미디가 제작되고,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동양학 이렇게 한다」라는 책이 이어 나오는 속류와는 달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반격처럼 보이는 「가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정신성에 합의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야 할 구체적 윤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한 책이다.

## 그리스 신화의 현대적 변용 다룬 새로운 해석

5세기의 아테네에는 신화에 관한 책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신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와 오딧세이의 귀향에 관한 호머의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많은 서사시인들은 신들의 사랑사건들과 유명한 영웅들의 모험담을 시

의 소재로 삼았다. 신화는 베를 짜는 부녀자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베들과 함께 전승되었으며, 역시나 길거리에는 똑같은 신화를 새롭고 흥미롭게 각색하여 청중들을 매료시키는 이야기꾼들의 진진한 만남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곤 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아테네를 함락시킨 4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세계 정복전쟁에 나섰던 알렉산더에 의해 그리스 문화는 지중해 전역으로 유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 신화도 처음으로 책으로 묶여졌다. 그것은 이 흥미진진한 신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널리 읽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대의 초간본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혀졌던 것으로는 로마의 시인 오비드(Ovid)가 라틴어로 번역했던 서사시 형태의 “변형”에 관한 신화 묶음일 것이다. “변형”에 관한 것이란 ‘오비드本’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도 인간이 신들과 조우한 결과 동물이나 식물로 변형해버린 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독교인들에 의한 번역본은 신화 가운데 섹스에 관한 것 같이 불경스런 내용은 삭제하고 대신 신앙생활을 위한 도덕적 교훈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강조하였다. 가령 인간들이 니오베처럼 돌로 변하지 않으려면, 또는 아라크네처럼 거미로 변하지 않으려면 인간이 神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또는 탄타루스처럼 신과 겨루려고 들다가는 영원토록 배고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그렇다. 그리고 빅토리아 朝에서의 번역본들은 낭만과 모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들이 부녀자를 약탈하는 부분에 관한 소재가 널리 퍼졌다. 독자들은 어떻게 유로파가 갑자기 새로운 애완동물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무런 거리낌없이, 제우스의 변형인 흰색 수소의 등에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제우스가 그녀를 크레테의 왕 미노스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행간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1988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간되고 최근에는 팀 파크스(Tim Parks)에 의해 영역된 로베르토 카라소(Roberto Calasso)의

「카드무스와 하모니의 결혼」(“THE MARRIAGE OF CADMUS AND HARMONY”, 403 pp. New York: Alfred A. Knopf.)은 똑같은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가 라는 것과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2000여년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20세기 그리스 신화”이다. 로마시대의 번역가 오비드와 마찬가지로 카라소는 신화 속의 변형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오비드가 ‘A가 B로 변했다’는 형태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면 카라소는 ‘육망’에 초점을 맞추고 신화를 재창조하고 있다. 그러서는 제우스가 왜 유로파를 피웠는지 또는 왜 디오니소스가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은 아리아드네를 구출해야 했는지 또는 여성은 왜 모든 영웅들 앞에 나타나 결국 그들의 삶을 망쳐버리는지가 자명하다.

신화 속에서 여성들과 여신들은 똑같이 열정에 따라 행동하며 욕구가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카라소는 왜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에게 그녀의 아버지, 미노스왕을 배반하면서까지 미노아 투르를 죽이고 미궁을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시킨다.

오비드와 마찬가지로 카라소는 탁월한 작가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는 등장인물들과 스토리 전개에 대해 독특한 성격부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세계와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오비드가 인물의 성격을 상냥하고 겸손하게 그려내고 스토리는 일종의 아이러니로 처리하고 있다면 카라소는 호머나 갈리마쿠스와 같은 이교도 작가들의 관점과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비드와 달리 카라소는 간간히 이야기 전개에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독자들은 하나의 신화가 함장한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도 눈을 뜰 수 있다.

카라소의 책은 유로파와 수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여러번에 걸쳐서 전해주는데, 그때, 그때마다 독자들은 원본의 이야기에서 발췌된 깊숙한 의미들을 흥미있게 읽어낼 수 있다. 그 다음 우리들은 다른 신화들을 거쳐 책 제목으로 쓰인 카드무스와 하모니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카드무스는 동년배의 소녀들과 꽃을 따러 갔다가 시돈에서 사라진 여동생 유로파를 찾는 도중에 하모니와 만난다. 제우스는 그녀를 크레타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그녀는 유럽대륙의 이름인 유로파를 얻는다. 저자 카라소가 통찰하듯 카드무스의 결혼은 앞으로 내내 유럽소설의 기본 골자가 될 신화의 사이들의 시초가 된다.

신화에 대한 이러한 구성은 이 책이 “1990년대 문화”를 위해 저자의 의도적으로 해석해낸 것임을 시사한다. 여타의 신화 작가들 예컨대 오비드조차도 세계의 기원에 대한 설명 즉 혼돈으로부터 지구의 탄생이라든지 지구와 하늘과의 결혼과 같은 창조신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카라소는 독자들로 하여금 神과 인간 특히 여성과의 교섭에 시각을 집중시키도록 짜고 있다. 따라서 카루소의 신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수백년간 믿어왔던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한 正義의 집행자가 아니라 단지 힘센 인간에 다름 아니다.

이와같이 카라소의 신화 해석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도덕적 교의’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마음에 썩 내킬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신화의 스토리가 전개된 장소와 자연세계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유보한다. 오비드와 마찬가지로 그는 신화와 특정 종교적 행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또는 대부분의 고대 신화작가들 마냥 신화의 언술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는 가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고대의 신화에 대해 일정한 객관적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저자의 안목이, 「카드무스와 하모니의 결혼」을 문학작품이면서도 학술서적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